

이병헌·김태리, 올해를 빛낸 드라마 배우 1·2위

이병헌과 김태리가 각각 올해를 빛낸 드라마 배우 1, 2위로 선정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탤런트를 두 명까지 들은 결과(자유응답) tvN 주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연 이병헌과 김태리가 각각 12.9%, 9.0%의 지지를 얻어 나란히 1, 2위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커플 '서준희'와 '윤진아'를 연기한 정해인(8.7%)과 손예진(5.3%)은 각각 3, 5위에 올랐다.

4위 박보검(6.1%)은 현재 tvN 수목 드라마 '남자친구'의 '김진혁'역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가 끝날 무렵 첫 회가 방송돼 사실상 올해 신작 없이 상위권에 들었다.

KBS2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중년의 사랑과 가족의 재탄생을 보여준 배우 장미희(5.0%)와 유동근(3.9%)이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했으며 7위는 JTBC 월화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에서 매월 일정 기간 타인의 얼굴로 변신하는 비밀을 지닌 배우 '한세계'를 연기한 서현진(4.5%), 8위는 '하나뿐인 내편' (KBS2)의 아버지 '강수일'역을 맡은 최수종(4.3%), 그리고 올해 신작은 없으나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tvN)의 '도깨비'로 작년 2위에 올랐던 공유(3.7%)가 10위에 올랐다.

그 외 ●소지섭(3.6%) ●박서준(2.9%) ●유이(2.7%) ●지성, 김희선, 고두심(이상 2.3%) ●이민기, 송혜교(이상 2.2%) ●차태현, 송중기(이상 2.0%) 등이 20위권에 들었다.

인니 방송위 “블랙핑크 광고 방송불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가 K팝 걸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한 현지 광고를 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블랙핑크의 의상과 안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게 이유다. 내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공연할 예정이었던 걸그룹 블랙핑크의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13일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면 인니 방송위는 최근 11개 현지 지역 TV 방송국에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의 광고를 내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방송위는 해당 광고가 '품위 규범'과 관련한 방송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많은 여성이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며 “(인도네시아) 대중이 지키는 품위와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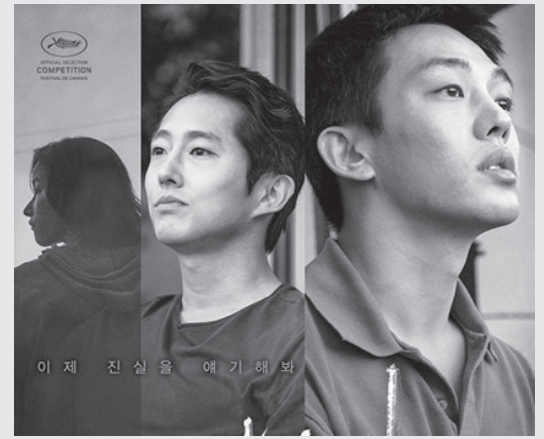
방송위는 이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광고가 계속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대체로 여성의 대외 활동에 너그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는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블랙핑크는 최근 히트곡 '뚜두뚜두' (DDU-DU DDU-DU)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버닝' LA영화비평가협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LA영화비평가협회(LAFCA)로부터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앞서 '버닝'은 LA영화비평가협회 최우수 작품상 부분에서도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와 경합을 벌였다. 또 토론토영화비평가협회(TFCA)는 '버닝'을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극 중 '벤'역을 맡은 스티븐 연은 휴 그랜트를 제치고 남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유아인은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올해의 배우 12인 중 유일한 동양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버닝'은 미국 방송영화비평가협회(BFCA)가 선정하는 '2019 크리티크스 초이스 어워즈'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이 상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 중 하나로 '버닝'은 인 레바논 영화 '가버나움' (Capernaum), 폴란드 영화 '콜드워' (Cold War), 멕시코 영화 '로마' (Roma), 일본 영화 '어느 가족' (Shoplifters)과 경합한다.

2019년 제91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 부문에 출품하는 한국영화로 선정된 '버닝'이 북미지역 여러 영화 비평가협회로부터 잇달아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거나 본선 후보에 선정됨에 따라 아카데미를 향한 도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미스터리한 면모를 지닌 세 남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올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